## 이렇게 들었다

### 고개든 '일본의 양심'

### "겸손히 사유하면 악행소멸"

▩만약 중생이 여러 악업을 짓고도 숨기고,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인과응보를 인정하려 않고, 지혜로운 이에게 묻는다든가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온갖 훌륭한 의사가 달려들어 그 병을 고치려 한다 해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열반경>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를 알며 살기 위해 고생할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이 두 경전 말씀은 그동안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양심없는 일본'을 두고 경책하는 꾸짖음처럼 들린다. 이런 부처님의 법음이 대한해협을 타고 일본에 전해졌는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례적인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일본의 패전기념일인 15일을 기해 해마다 해오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연기했다고 NHK 방송이 8일 보도했다. 한국의 광복절을 피해 신사참배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한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특히 이번 결단은 그동안 물의를 빚어오던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분노를 산데 대한 일본 총리의 신중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차후 양심을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씨는 7일 일본 도쿄 교육위원회가 왜곡적 내용이 담긴 역사 교과서를 일부 장애아 특수학교 3곳(해당 학생수 70여명)에서 사용키로 한데 대해 "약한 상대를 점 찍은 잔혹한 표적 공격 아닌가"라는 말로 분노를 표출했다. 선천성 장애아 아들을 두고 있는 오에 씨는 8일자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에서 "장애아들이 다니는 양호학교에서 문제의 교과서를 사용토록 한 것은, 저항이 약한 상대를 골라 공격하려는 세력과 권력을 지닌 사람과의 합작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오에 씨는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문제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반성이 전체 일본인의 여론으로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은 여기에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에서 열거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일본의 양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또 앞으로도 계속 두고 볼 일이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대집경〉에 나와 있는 "백천겁 동안에 모인 온갖 악행이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의 힘으로 겸손히 사유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진실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겸허한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김주일기자

# 주5일 근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자 세상보기

### 노-사정 의견대립 첨예
### 실질노동시간 단축 '의문'
### "생활고 없는 삶의 질 향상"



이은숙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1998년 이래 계속돼 온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올해 마무리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통령이 연내에 주5일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노동부가 적극 나서고 있어 연내 도입의 기대를 갖게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 온 지 3년이나 됐기 때문에 격세지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가움 보다는 우려감이 앞선다. 그 우려감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과연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7월27일 김대중 대통령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자, 곧바로 7월28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시기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재계는 임금문제 및 휴일휴가 문제 등 노사 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에 대해 개악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노동부는 11월까지는 법 개정안을 니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작년 하반기에도 한번 제출된 바 있지만, 자본측 요구와 동일선상에서 각종의 노동조건들을 개악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핵심적으로 정부는 단계적 적용, 휴일휴가제도 문제, 변형시간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행 임금 수준의 인상이다. 저임금 구조가 해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소득 보전을 위해 초과노동을 감수해왔다. 기본급 수준이 총액임금의 절반 혹은 그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잔업 및 휴일휴가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필연이다. 이때 어떤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환영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변형노동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을 듣어보면 과연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큰 의문이 드는데, 정부가 이와 같은 주장들을 수렴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왜 단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주5일제 도입을 왜 서두르는지 의문마저 든다.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고, 임금수준이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보장되면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연관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업 및 반실업 인구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인 수준에서 볼 때 커다란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생활고 없이 사회 구성원 1인당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그야말로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 및 자본측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들은 이러한 방향과는 어긋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경험은 1989년 노동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이미 우리 사회가 겪은 바 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질 노동시간은 1주 51시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법의 단계적, 차등적 적용과 모든 노동조건 개악 시도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또다시 그 당시의 오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열린마당

### '사찰문화재 보존' 정책토론회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찰소장 문화재의 도난과 훼손, 불법적인 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토론회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렸다.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사찰문화재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해 가치 있는 사찰문화재를 정부(지방)문화재로 지정해 관리대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정문화재에 한해 선의취득 규정의 예외 적용, 문화재청 기구 확대를 통한 불교문화재과 신설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 "전면조사 후 문화재 지정 확대"

현고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리 나라 지정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국보의 56%, 보물의 66%, 지방유형문화재의 48%, 문화재자료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계종이 51%, 국가가 32%를 보유하고 있다. 불교문화재 도난사건은 최근 15년간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에 공식 신고된 것만 320여건이 발생했는데, 도난 문화재의 95%가 비지정문화재다.

이처럼 비지정 불교문화재가 도난의 집중 표적이 되는 것은 지정이 되지 않았을 뿐 가치 있는 문화재가 많다는 점,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절취 후 유통이 용이한 점, 지정문화재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점, 검거됐을 경우 법률적 처벌이 관대한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사찰이 지리적으로 산간벽지에 자리잡고 있고, 침입이 용이한 목조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점도 한 원인이다.

도난을 예방하고 문화재 훼손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찰문화재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해 가치 있는 문화재를 관리자에게 인지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공식화 · 관리대상화 시키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가치를 재인식하면 보존을 위한 사찰의 자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현상변경(훼손)을 못하게 되며, 공개된 문화재라 유통이 어려워져 도난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사찰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없는 현실에서 교구본사 박물관은 해당지역 사찰의 문화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점이라는 데서 그 활성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직원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종단과 사찰의 투자, 전문성 강화를 우한 유관기관(문화재청, 국립박물관)의 협조,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 "처벌강화보다 불법유통 억제"

박용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문화재 보호정책은 더 이상 다른 정책의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문화재 보호 관련 법규는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로 일반 형법 법규에 비해 상당히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규정 강화만으로는 매년 줄지 않고 있는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형사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다소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도난 문화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여진다. 문화재 절취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반 재화와 달리 그 유통이 제한적이라는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할 때 문화재에 한해 선의취득제도의 예외를 둔다고 해도 거래의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도난 문화재를 거래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들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도난 문화재의 유통이 억제되고, 이로 인해 문화재를 절취하고자 하는 유인이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한편 도난 문화재의 대부분이 비지정문화재라고 하여 선의취득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에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의 저해, 그 대상의 불명료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문화재에 한해 선의취득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문화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정의 마련 못지 않게 문화재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및 이를 통한 비지정문화재의 지정 확대, 문화재 도난사범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수사반 설치 및 이의 지속적 활동 유지 확보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문화재청 불교문화재팀 신설"

문명대 교수 〈동국대 미술학과〉



문화재청이 청의 면모를 갖춰 문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면 문화재보존 관리를 집행하는 행정기구, 문화재 관리와 보존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보존관리를 연구하는 문화재연구소가 개선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은 1급청에서 타 청과 같이 차관급으로 승급되어야 하며, 현재 문화재기획국과 문화유산국 외에 문화재기술국을 추가해 문화재 보존보수 등 기술적인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관장하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의 보존 · 전시를 관장하는 국립박물관은 기능이 거의 동일하므로 한 기구로 통합 운영하거나 문화재청과 연계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국립박물관 외에 공사립박물관을 행정적으로 관리 ·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내 박물관과는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불교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기구가 확대 개선된다면 문화유산국에 불교문화재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울 때는 각 과에 각 분야의 불교문화재팀(계)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 내에 각 분과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행정기구에서 제안한 장단기 문화재정책의 입안을 심의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관장하는 문화재정책위원회 분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교문화재의 중요성으로 볼 때 문화재위원회와 상임전문위원회의 구성에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불교문화재전문가가 반드시 충원되거나 별도의 기구로써 보완되어야 한다.

불교계 역시 불교문화재와 불교문화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에 문화재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직 충원과 산하 조직인 발굴조사단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대학 개강(2년제)

정토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이 왜곡되지 않은 「바른불교」, 어렵고 난해하지 않은 「쉬운불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불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년, 4학기 과정)

교과과정
■ 불고입문과정 : 실천적 불교사상
■ 부처님의 일생 :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근본불교 : 불교사상의 뿌리
■ 변천사 : 한국불교 및 인도불교, 세계불교변천사
■ 불고교학 : 대승불교의 꽃
■ 수행론 : 참 나를 찾아서
■ 불교와 사회 I : 불교와인류문명
■ 불교와 사회 II : 불교와 환경 생명사상
■ 불교와 사회 III : 불교와 평화
■ 불교와 사회IV : 불교와 복지
■ 기타 : 특강 및 수행수련

| | 교육기간 | 요 일 | 법회시간 |
|---|---|---|---|
| 서 울 | 9/4-12/11 | 매주 화 | 주/야 |
| 부 산 | 9/3-12/10 | 매주 월 | 주/야 |
| 대 구 | 9/5-12/12 | 매주 수 | 주/야 |
| 대 전 | 9/7-12/14 | 매주 금 | 주 |
| 청 주 | 9/7-12/14 | 매주 금 | 야 |
| 마 산 | 9/4-12/11 | 매주 화 | 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정토불교대학 02) 587-8993
부산정토불교대학 051) 557-2746
대구정토불교대학 053) 744-3025
대전정토불교대학 042) 253-8990
청주정토불교대학 043) 284-5951
마산정토불교대학 055) 247-8991
011) 9000-9529

모집대상 및 입학금
▣ 대 상 : 만 19세이상 누구나 다
▣ 참가비 : 6만원(한 학기)
▣ 접수기간 : 7월 16일 ~ 9월 24일
▣ 접수 및 문의 : 각 지역 대학 사무국
※ 본과정은 중간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통신대학 개강(2년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들을 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기본 교과내용으로 하면서 사회적 실천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신 법륜스님께서 정토불교통신대학에서 강의합니다.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는 법륜스님의 통신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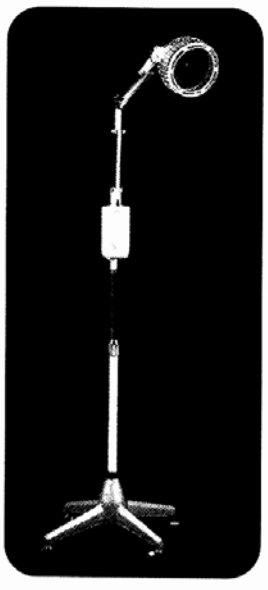
1. 입학대상 : 성인 남녀 누구나 (연령, 학력 제한 없음)
2. 교육기간 : 2년(4학기)
3. 특전사항 : 2년 전과정을 마친사람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이 주어집니다.
4. 접수기간 : 7월16일 ~ 9월 24일 (월요일)
5. 접수 및 문의 : 정토불교대학 사무국
   전화 : 02-587-8994 / 전송: 02-587-8998
6. 입학식 · 소집일 : 2001년 9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 정토회관
7. 교육방법 :
   · 법륜스님께서 강의하신 녹음테이프와 교재가 우송됩니다.
   · 과목별로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 철저한 학사관리를 합니다.
8.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9. 등 참 비 : 입학금 10만원, 한학기 20만원 ( 분할 가능)
   * 국민은행 823-01-0148-855<이지현>
10. 교과내용

| | | | |
|---|---|---|---|
| 실천적 불교사상 | 인 간 붇 다 | 근 본 불 교 | 불교의 변천사 |
| 법 성 게 | 신 심 명 | 반 야 심 경 | 육 조 단 경 |
| 환경과 불교 | 복지와 불교 | 평화와 불교 | 통일과 불교 |
| 일·수행의 수행 | 일·수행의 일 | 마음 다스리는 길 | 민족의 역사 |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료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성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중상법)
1.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관지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2.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피부염, 습진, 무좀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혀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뇨 장애자 신장
5.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6.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7.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8.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내막염 재증상)
9. 고질적인 치질 · 치루 ·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金賞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병원용겸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 미국F.D.A에서 특정 자기파 (T.D.P) 치료기 인정 (K875052)
■ 유고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 ISO (9001) 획득, 한국 95년도 보건 복지부 인정 수입



판매자 : 황진규

T.D.P.치료기 대여 사업인기 /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소식 BLACK.DISK.
빛(光)과 파장을 이용한, 신(新) 건강요법
◆ 대여점 및 취급점 모집 중 ◆
휴대폰시에는 080을 빼주세요!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무료전화 : 주,야 080)522-2464 / H.P : 019)614-2550